

천안·아산지역어와 대구지역어에 나타나는 *w* 탈락현상의 비교연구-대학생 언어를 중심으로*

강현석** · 이장희
(단국대학교) (경북대학교)

Abstract

Kang, Hyeon-seok and Lee, Jang-hee. 2006. A Comparative Study of *w* Deletion Observed in Cheonan-Asan and Daegu College Students' Regional Dialect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4(2). On the basis of 24 speakers' recorded speech this paper examines the variable deletion of *w* in two regional dialects, Cheonan-Asan Korean and Daegu Korean. Varbrul analyses are conducted using the 3965 tokens of (*w*). Results of the combined and separate analyses show that the two dialects are subject to very similar constraints in *w* deletion, though deletion rates and the strengths of the constraints on the deletion process are somewhat different. It is suggested that the syllable structure of young Daegu Korean speakers might be rather different from that of older speakers, and that dialect leveling from contact with Standard Korean could be the cause of this change.

Keywords: Cheonan-Asan dialect, Daegu dialect, /*w*/ deletion, comparative study.

I. 서언

본 연구는 Labov의 계량사회언어학(quantitative sociolinguistics)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천안·아산 지역어와 대구 지역어에 나타나는 사회언어학적 변이 현상인 활음 *w*의 탈락을 점검한다. 본 연구는 두 지역어간의 *w* 탈락 현상에 대한 언어내적·언어외적 제약의 공유 여부에 초점을 두고 두 방언의 음운적·사회언어학적 구조를 비교·대조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ilva(1991)는 /사과/-> [사가], /뽕다/ -> [뽕다]의 예에서 나타나는 *w* 탈락 현상이 범주적(categorical)으로 나타나는 일반 음운 현상이 아니라 가변적(variable)으로 언어 내적(internal) 또 외적(external) 제약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언어학적 음운과정임을 보이는 선도적인 계량사회언어학적 연구였다. 그는 한국인 화자 17명의 자료를 점검하여 선행자음, 후행모음의 유형과 같은 언어내적 제약과 발화스타일(문장읽기, 단어읽기, 최소쌍(minimal pair)읽기), 남녀 성별과 같은 언어외적 제약이 이 변이 현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또한 그의 언어내적 제약의 발견을 음운론의 자질이론(feature theory)과 연계시켜 성공적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Silva(1991)의 연구는 특정 방언의 화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w* 탈락에 있어서 다소간의 다른 양태를 보인다고 생각되는 여러 방언(즉 서울·경기, 충청, 경상, 전라)의 화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었다. 또한 그의 연구는 일상 언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읽기발화(read speech)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Martin(1992)이 지적하듯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1- A00051).

**제 1 저자

이 *w* 탈락은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완/->[수완], /구원/->[구원]에서 나타나듯이 모음(특히 원순모음) 뒤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Kang(1998)은 위 문제점을 보완하여 서울방언 화자만을 대상으로 이 방언에 나타나는 *w* 탈락 현상을 점검하였고 자연발화(spontaneous speech)와 읽기발화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선행자음이 없을 때의 *w* 탈락도 점검하였다. 그의 연구에 나타난 중요 제약 중 하나는 선행자음의 조음점이었는데 특히 양순음(m, p) 뒤의 *w*는 거의 범주적(categorical)으로 탈락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ang(1998)이 밝힌 또 다른 중요한 언어적 제약은 *w*가 단어의 어두음절에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였는데, *w*는 어두음절보다 비어두음절에서 훨씬 높은 빈도로 탈락 현상이 일어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는 비언어적 제약인 발화스타일(자연발화·문장읽기·단어읽기)과 화자의 사회계층(social class)도 *w* 탈락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본 연구는 위의 두 연구를 바탕으로 충남방언과 경북방언에서의 *w* 탈락 현상을 두 지역 대학생의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한다. 이 두 방언에서 *w* 탈락이 어떤 언어적, 비언어적 제약하에 나타나는지, 서로 다른 제약에 영향을 받는지, 같은 제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제약의 강도는 유사한지에 특히 중점을 둘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 두 방언이 특히 음운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다른 언어변종(linguistic variety)인지 천안·아산과 대구라는 언어사회가 어느 정도 유사한 사회적 평가기준(evaluation norms)을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본 연구가 점검하고자 하는 주요 논점과 논제를 소개한다. III절은 이 연구의 방법론을 소개하는 절로 연구 자료와 통계 기법을 포함한 자료 분석 방법을 기술한다. IV절에서는 본 연구의 통계 분석 결과와 두 지역어 체보자들의 자기 평가 테스트의 결과를 소개하고 이들의 의미를 논의한다. V절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결과가 앞서 설정했던 연구 논제에 대해 어떠한 함축적 의미를 갖는지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VI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요약과 이 논문의 의의와 제한점을 기술한다.

II. 연구 논점과 논제

충남방언과 경북방언의 활음 *w* 탈락에 대한 본격적, 포괄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충남방언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저 관찰되는 음운 현상의 하나로 기술되어 있을 뿐이고, 경북방언에서는 *w* 탈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음운 현상 중의 하나여서 많은 주의를 받고 있지만 직접 녹음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충남방언에서는 한영목(1992: 115, 1998: 37, 2000: 53)이 /돼지/->[대지], /꿨다/->[께다], /과자/->[가자] 등의 예를 들며 충남방언에서 *w* 탈락 현상이 일어남을 관찰하고 있다. 대체로 남한의 방언은 서울·경기 방언권에서 멀어질수록 화자들의 비표준적 발음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³⁾ 이 관점에서 보면 충남방언의 *w* 탈락율이 Kang(1998)에서 보고된 서울방언의 그것보다 다소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경상방언의 *w* 탈락 현상은 이 방언의 특징적 현상으로 여러 연구에서 관찰, 언급되어 왔다. 경상방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예: 주상대 1985: 158 참조) CGV-(자음+활음+모음)라는 음절구조를 금지하는 표면음성제약(phonetic surface constraint)이 이

3) 예를 들어 최태영(2002: 566)은 전북방언의 *w* 탈락이 서울·경기 방언보다 빈도가 상당히 더 높음을 암시하고 있다.

방언에 존재한다고 제안한다. 이 제약에 따라 순수 국어 단어의 일부는 경상방언에서 *w*를 상실한 형태로 변화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경상방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국어 어휘의 60-70%를 차지하는 한자어와 많은 고유어 단어에서 여전히 기저에 *w*가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예를 들어 이근열(1997: 84)은 고유어 어휘인 /돼지/, /뺨/을 [테지], [뺨]으로 발음하는 것을 ‘기저’ *w*의 탈락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주상대(1985: 164)도 /취다/를 경상방언 화자의 흔한 발음인 [지다]의 기저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Kang(1998)이 제시한 중요한 발견의 하나는 서울방언의 *w*탈락이 어두 음절이나 비어두음절이나에 따라 발생 빈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사과 /->[사가]는 잘 나타나지만 /과장 /->[가장]은 아주 드물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경상방언에 앞서 언급했던 음절구조에 대한 표면음성제약이 있다면 *w* 탈락의 빈도에 있어서 어두음절과 비어두음절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음절구조제약은 어두음절에도 비어두음절에도 공히 적용되는 제약이기 때문이다.

서울방언과 충남방언에는 존재하지 않고 경상방언에만 나타나는 *w* 탈락의 잠재적 제약은 성조이다. 경북방언 그 중에서도 대구방언에서는 각 음절에 높은 성조(H tone)와 낮은 성조(학자에 따라 L 혹은 M tone으로 표기)가 표면형으로 나타난다. 높은 성조는 액센트(pitch accent)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w* 탈락을 제어하는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학자들은 또한 경상방언에서 자음이 선행하지 않을 때도 *w*가 상당한 빈도로(다른 방언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탈락됨을 관찰하고 있다. Kang(1998)은 서울방언에서 자음이 선행하지 않을 때는 비어두음절에서만 또 대개 원순모음 뒤에서만 *w*가 탈락한다고 제시하는데 반해 이병건(1993: 47)은 경상방언에서는 어두음절에서도 (/왜국 /->[애국], /왜놈 /->[애놈]) 또 비원순 모음 뒤에서도 (/미완 /->[미안]) *w* 탈락현상이 적지 않은 빈도로 일어 날 수 있다고 관찰한다.

위에 언급한 논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제를 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한다.

1. 충남방언과 경북방언의 *w* 탈락의 빈도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2. 충남방언과 경북방언의 *w* 탈락은 어느 정도 다른 언어적 제약이 적용되는가?
 - (1) 어두·비어두 음절의 차이는 두 방언에서 어느 정도 다르게 나타나는가?
 - (2) 선행자음이 없을 때의 *w* 탈락은 충남방언과 경북방언에서 어떤 빈도로 또 어떤 언어적 제약하에서 나타나는가?
 - (3) 경북방언에서 성조는 *w* 탈락 현상의 제약이 될 수 있는가?
3. 충남방언과 경북방언의 *w* 탈락은 동일한 언어외적 제약(즉 성별, 발화스타일 등)에 영향을 받는가? 양 언어사회에서 *w* 탈락은 유사한 사회적 평가를 받는가?

III.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두 공동연구자가 12명의 충남방언 화자와 12명의 경북방언 화자와 각각 행한 사회언어학적 면담(sociolinguistic interview)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충남방언에서도 특히 천안·아산 방언의 화자와 대구방언 화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충남방언과 경북방언 중에서도 특정 하위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충남방언과 경북방언에는 여러 하위 방언권이 있어 변이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아산

방언은 도수희(1987)와 한영목(1998)에 의해 충남 동북부 방언권으로 분류된다. 경북방언에서의 대구방언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소 가변적인데 최명옥(1998)은 경북방언의 하위구획을 셋으로 나누면서 대구 지역어를 칠곡, 성주, 고령, 달성 지역어와 함께 경북 중동서부 방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김덕호(2001)는 대구 지역어를 경북방언의 네 하위 분류 중 하나인 경북 동남방언으로 경산, 청도, 영천, 경주 등의 지역어와 함께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보자로는 두 공동 연구자가 각각 재직하고 있는 두 학교에 재학 중인 천안·아산 방언 화자 12명과 대구방언 화자 12명이 참여한다. 천안·아산 방언 화자는 부모가 충남 출신이고 천안·아산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화자라고 정의되며, 마찬가지로 대구방언 화자도 부모가 대구·경북 출신이고 대구 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사람이라고 규정된다. 각 지역어의 12명의 화자는 잠재적 성차(gender difference)를 점검하기 위해 남·녀 6명씩으로 구성되었다.

두 공동 연구자는 각각 맡은 지역의 12명의 화자와 사회언어학적 면담(Labov 1972, 1981)을 행하였다. 사회언어학적 면담은 면담 자료(interview schedule)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면담 자료는 총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연구에 필요한 제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제보자와의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제보자가 기입·완성해야 할 부분이다. 2부는 제보자의 자연스런 발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마련된 질문들로 간단한 가족소개, 천안(혹은) 대구에 대한 의견, 다닌 학교,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과목들,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 취미, 여자(남자) 친구를 만난 사연, 지금까지 겪은 가장 큰 사고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되도록 제보자가 부담 없이 평소의 말씨에 가까운 언어로 답할 수 있도록 비교적 가벼운 내용의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각 제보자의 답변 내용 및 성향에 따라 2부에 포함된 질문 외의 물음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사용되었다.

3부는 제보자의 읽기발화를 수집하기 위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장읽기, 단어읽기, 최소쌍 읽기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문장·단어·최소쌍 읽기 자료에는 활음 w 를 기저에 갖고 있는 여러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단어는 본 연구가 점검하는 다양한 w 탈락의 언어적 제약의 영향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휘들이 선택되어 있다(첨부 참조). 또한 자료에 포함된 문장과 단어에는 제보자가 연구의 목적을 알지 못하도록 직접 연구 대상과는 관계없는 여러 문장, 단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4부는 제보자가 자신의 발화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또 w 변이형들(variants), 즉 w 존재형과 w 탈락형 중 어떤 것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자료는 두 변이형에 대한 두 언어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연구자와 제보자와의 대화와 제보자의 모든 읽기발화는 Sony ECM 135 마이크를 현지조사(fieldwork)용 소형 Sony WM-D6C 녹음기에 부착하여 녹음하였다. 녹음기와 마이크는 중형 크기의 봉투로 덮어서 제보자의 의식을 피하였다. 제보자와의 면담은 약 1시간 정도가 걸리게 고안되었는데, 1부 자료 작성에 5분, 2부의 면접자와의 대화에 35분, 3부의 읽기자료에 15분, 마지막으로 4부 자료 작성에 5분이 배정되었다. 연구자는 면접 도중 제보자가 되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말을 자유롭게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에 치중하였다. 소액의 제보비가 면접 후 제보자에게 제공되었다.

2. 자료 분석 방법

녹음된 연구 자료는 테이프를 반복해 들으면서 전사(transcribe)되었다. 음성학적으로 훈련

된 천안방언 화자 1인과 대구방언 화자 1인이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전사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사회언어학적 변수(sociolinguistic variable)인 *(w)*이고 이 변수는 $\{w\}$ 와 $\{\emptyset\}$ (즉 *w* 탈락)라는 두 변이형(variants)을 갖는다. 따라서 전사된 자료 중 기저에 발음 *w*를 갖는 단어만을 골라 $\{w\}$ 와 $\{\emptyset\}$ 의 변이형을 판별하고 이들을 각 변이형의 사례(tokens)로 추출하였다. 전사자의 *w* 탈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책임 연구자인 제1저자가 다시 점검하였다. 불분명한 사례 또는 전사자와 책임 연구자 간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예는 모호한(ambiguous) 사례로 분리 처리되어 통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총 3965개의 사례가 최종 통계처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천안·아산 지역어의 자료가 1927개, 대구 지역어의 자료가 2038개였다.

자연발화(spontaneous speech)와 읽기발화(read speech)에서 추출된 변수 *(w)*의 변이형 사례는 계량사회언어학의 대표적 통계분석 기법인 가변규칙 분석(variable rule analysis: Guy 1996 참조)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되었다. 가변규칙 분석이 사용하는 Varbrul 프로그램은 일반적 통계 분석이 전제하는 사례의 정상 분포(normal distribution)와 균일 분산(homogeneous variance)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언어학 자료를 대상으로도 여러 잠재적 제약의 영향을 성공적으로 고립(isolate)시켜서 산정할 수 있고, 또 각 제약의 영향이 연구 대상인 변이에 통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자동적으로 분석해 주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Sankoff, Tagliamonte와 Smith(2005)가 개발한 Varbrul 프로그램의 최신판인 윈도우즈 용 Goldvarb X를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총 3회에 걸쳐 Varbrul 분석을 행하였다. 먼저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이어 천안·아산 지역어 자료와 대구 지역어 자료를 대상으로 각각 개별 분석을 하였다. 아래 표는 전체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점검한 *w* 탈락의 잠재적 제약군과 개별 제약들을 보여준다.

잠재적 제약군(factor groups)	개별 제약(factors)
1. 선행자음의 존재	유, 무
2. 선행자음의 조음점	양순, 치경, 경구개, 연구개, 성문
3. 선행모음의 원순성	원순, 비원순
4. (단어 내에서의) 음절위치	어두, 비어두
5. 성조 유형	고, 저
6. 발화 스타일	자연발화, 문장읽기, 단어읽기, 최소쌍읽기
7. 성별	남, 녀
8. 지역어	천안·아산 지역어, 대구 지역어

<표1> *w* 탈락에 대한 가변규칙 분석의 잠재적 제약군과 개별 제약들

우선 선행자음의 유무가 잠재적 제약군으로 점검되었다. Martin(1992)이 제시하듯이 *w* 탈락은 선행자음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고 또 그 빈도 수는 감소하지만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선행자음의 조음점이 잠재적 제약군으로 점검된다. Silva(1991)는 한국어에서 후설(dorsal)자음이 선행할 경우 *w* 탈락이 훨씬 덜 일어난다고 제안하였고, Kang(1998)은 서울 방언에서 선행 양순자음이 *w* 탈락을 거의 범주적(categorical)으로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는 충남과 경북 지역어에서 선행자음의 조음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다시

점검한다.

세 번째로 점검한 잠재적 제약군은 *w*를 바로 선행하는 자음이 없을 경우에 *w*를 선행하는 모음의 원순성이다. Martin(1992)과 Kang(1998)은 선행모음이 원순음일 때(예: 구원)가 비원순음일 때(예: 자원)보다 *w* 탈락의 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관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원순자질이 연이어 나오는 것, 즉 입술을 연이어 둥글게 오므리는 것을 조음적 이유로 언어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연구는 이 제약을 다시 점검한다.

네 번째로 점검되는 언어내적 제약군은 *w*를 기저에 포함한 음절이 단어의 어두음절(예: 과자)인가 비어두음절(예: 사과)인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국어의 어두음절과 비어두음절은 상당히 다른 음운적 변이와 변화를 보이는데, 예를 들면 아래 아()는 어두음절에서는 ‘아’로(예: 프리 > 파리) 비어두음절에서는 ‘으’로(예: 나므라다 > 나므라다 > 나무라다[두 번째 변화는 자음 ‘ㄱ’의 영향으로 인한 모음의 원순모음화임]) 변화하였고(최학근 1991), 서울방언의 이중모음 ‘의’는 어두음절에서는 ‘으’로 비어두음절에서는 ‘이’로 각기 변화하고 있다(정연찬 1991). 또한 서울방언을 점검한 Kang(1998)도 *w* 탈락이 어두음절과 비어두음절에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방언과 상대적으로 *w*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경북방언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점검한다.

다섯 번째 잠재적 제약군은 대구 지역어의 자료만을 점검 대상으로 하는데 기저에 *w*가 나타나는 음절의 성조가 고(H)조냐 저(L)조냐에 관한 것이다. 경상방언의 고(H)성조는 일종의 강세(pitch accent)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데 이것이 *w* 탈락 현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강세를 받는 음절은 길이가 더 길어지고 더 분명히 발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자들(예: 김차균 1999; 최한조 1997)은 경남방언의 일반적 성조 분류법인 고(H), 중(M), 저(L)의 성조 체계를 경북방언에 대해서도 설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북방언 성조 분석의 좀더 일반적 성조 분류법(김성환 1988; 이동화 1990; 이병건 1993 참조)을 따라 두 개의 성조, 즉 고(H)와 저(L)를 분석 단위로 채택한다. 성조는 단어가 모여 구나 문장이 되면 원래 단어와는 다른 성조의 변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구 지역어 자료 중에서도 단어읽기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성조 분석을 위해 대구방언의 성조를 연구하는 세 명의 연구자에게 면담 자료 3부의 III과 IV 부분에 포함된 단어의 대구방언에서의 성조에 대하여 자문하였다. 대체로 세 연구자의 판단은 일치하였으나 몇몇 경우에는 다르게 나타났다. 판단이 다른 경우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점검하는 세 잠재적 제약군은 언어외적(external)인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제보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자연발화, 문장읽기, 단어읽기, 최소쌍읽기로 분류하는데 이 순서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쏟는 주의가(즉 자신의 발화를 스스로 감시하는 정도가) 가장 적은 발화부터 가장 많은 발화의 순이다. 만약 *w* 탈락이 자연발화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문장·단어읽기에서 중간 빈도를 보이고 최소쌍읽기 발화에서 가장 적게 일어나면 제보자들은 *w* 탈락을 언어사회 내에서의 평가나 인식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함을 암시하는 것이 된다.

일곱 번째로 점검한 잠재적 제약군은 성별인데 기존의 서구 언어사회를 대상으로 한 계량사회언어학의 선행 연구 중 많은 연구들(예: Labov 1966; Nordberg & Sundgren 1998; Trudgill 1974) 같이 여성이 표준적 변이형을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발화하는 행태를 보이는지, 즉 남녀간에 *w* 탈락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두 방언을 개별 제약으로 해서 두 방언에서 *w* 탈락 빈도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점검한다. 대구 지역어가 천안·아산 지역어보다 더 높은 탈락 비율을 나타낼 것

으로 예상된다. 천안·아산 지역어 자료의 개별 분석에서는 성조 유형과 지역어 제약군이 포함되지 않았고, 대구 지역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어 제약군이 포함되지 않았다.

IV. 연구결과와 논의

1. Varbrul 분석 결과

천안·아산 지역어와 대구 지역어 자료에서 추출된 (w)의 사례를 통합하여 Goldvarb X 프로그램으로 통계분석한 결과가 표2에 주어진다. 전체 (w)의 사례수는 3965 개였다.

잠재적 제약군	개별 제약	확률	탈락률	사례수
*선행자음(유무)	유	.651	35%	2795
	무	.185	15%	1170
*선행자음(조음점)	양순	.909	79%	330
	치경음	.637	49%	819
	경구개	.324	12%	393
	연구개	.315	21%	932
	성문	.347	25%	321
*선행모음(원순성)	원순	.579	33%	155
	비원순	.460	27%	304
	어두	.399	25%	2258
*음절위치	비어두	.633	34%	1707
*성조유형	고	.491	18%	198
	저	.514	17%	125
*발화스타일	자연발화	.639	39%	2184
	문장읽기	.357	20%	896
	단어읽기	.455	19%	645
	최소쌍읽기	.074	2%	240
	남	.518	28%	1717
성별	녀	.486	30%	2248
	천안/아산	.418	26%	1927
*지역어	대구	.583	33%	2038

<표2> 전체 자료의 w 탈락에 대한 가변규칙분석 결과

(*앞에 별표가 표시된 제약군이 다중회귀분석에서 w 탈락이라는 변이 현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제약군으로 선택된 것임 [선택순: 선행자음(조음점)->발화스타일->음절위치->지역어->선행모음(원순성)->선행자음(유무)->성조유형])

KCS I

잠재적 제약군	개별 제약	확률	탈락률	사례수
*선행자음(유무)	유	.654	31%	1451
	무	.187	14%	587
*선행자음(조음점)	양순	.907	76%	171
	치경음	.603	41%	421
*선행모음(원순성)	경구개	.284	9%	194
	연구개	.315	17%	416
	성문	.389	23%	142
*음절위치	원순	.601	37%	82
	비원순	.446	25%	154
*발화스타일	어두	.386	21%	1076
	비어두	.643	33%	851
*성조유형	자연발화	.642	34%	1046
	문장읽기	.396	18%	439
* 발 화 스타 일	단어읽기	.452	20%	322
	최소쌍읽기#	.046	1%	120
	남	.525	27%	946
성별	녀	.476	25%	981

<표3> 천안·아산 지역어 자료에서의 w 탈락에 대한 가변규칙분석 결과

[#천안·아산 지역어 자료에서는 최소쌍읽기에서 w가 탈락된 사례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음. Varbrul 분석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한 변이형이 100% 범주적(categorical)으로 나타나면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적 분석 관례대로 탈락의 사례 하나를 삽입하여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음.]

*앞에 별표가 표시된 제약군이 다중회귀분석에서 w 탈락이라는 변이 현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제약군으로 선택된 것임 (선택순: 선행자음(조음점)->음절위치->발화스타일->선행모음(원순성)->선행자음(유무))]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행한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발화자의 성별을 제외한 모든 제약군이 본 연구가 점검하는 변이 현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statistically significant)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제약군의 하나로 ‘지역어’ 유형이 다중회귀분석에서 선택되었는데 이 결과는 두 지역어가 w 탈락이라는 변이적 음운 과정에서 동일하지 않은 양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천안·아산 지역어와 대구 지역어는 자연발화와 읽기발화를 합한 전체 자료에서 각각 26%와 33%의 w 탈락 비율을 보였다(표2 하단 부분 참조: 이는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들이 예상했던 두 지역어간의 차이보다는 적은 것이다.). 평균 w 탈락 비율은 다중회귀분석에서 w 탈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선행자음의 조음점, 발화스타일, 음절위치, 선행모음의 원순성, 선행자음의 유무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러한 여러 환경에 두 변이형(즉 {w}와 {∅})의 사례가 균일한 비

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 제약군의 영향을 고립화시켜서 자료에서 발견되는 사례의 분포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Varbrul 확률(probability)이 각 제약의 변이 현상에 대한 영향도를 단순 백분율보다 훨씬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2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천안·아산 지역어와 대구 지역어는 Varbrul 확률에서 백분율에서보다 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Varbrul 확률은 .5 이상이면 분석 중인 변이 과정[본 연구에서는 w 탈락]을 촉진하는 영향을 보이는 것이고 .5 이하이면 분석 대상 변이 과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대구 지역어라는 제약은 w 탈락을 촉진하는 영향을 보이는 것이 되며, 천안·아산 지역어라는 제약은 억제하는 영향을 보이는 것이 된다. 물론 이 영향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표3과 4는 w 탈락 현상의 빈도와 Varbrul 확률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두 지역어의 자료를 개별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두 지역어는 통계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점검된 언어 내적, 언어외적 제약에 아주 유사한 양태를 보인다. 다중회귀분석에서 w 탈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제약군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논의해 본다.

선행자음의 유무. w 를 선행하는 자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w 탈락의 빈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선행자음이 있는 경우는 양 지역어에서 모두 w 탈락의 확률이 현격히 증가하였다(천안·아산 지역어: .187->.654; 대구 지역어: .180->.649). Goldvarb X 프로그램의 교차비교(cross tab) 기법을 활용하여 자연발화 자료에서만 w 탈락 비율을 점검한 결과 선행자음이 있는 경우는 천안·아산 지역어가 42%, 대구 지역어가 52%로 나타났고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는 각각 18%와 22%로 나타났다.

잠재적 제약군	개별 제약	확률	탈락률	사례수
*선행자음(유무)	유	.649	39%	1344
	무	.180	16%	583
*선행자음(조음점)	양순	.910	82%	159
	치경음	.673	59%	398
*선행모음(원순성)	경구개	.348	16%	199
	연구개	.317	24%	516
	성문	.321	26%	179
*음절위치	원순	.545	29%	73
	비원순	.478	29%	150
*발화스타일	어두	.407	29%	1182
	비어두	.627	36%	856
성조유형	자연발화	.497	17%	198
	문장읽기	.505	18%	125
* 발 화 스타 일	단어읽기	.635	44%	1138
	단어읽기	.329	21%	457
	최소쌍읽기 [#]	.464	17%	323
성별	남	.105	4%	120
	남	.518	30%	771
	녀	.489	33%	1267

<표4> 대구 지역어 자료에서의 *w* 탈락에 대한 가변규칙분석의 결과

[*앞에 별표가 표시된 제약군이 다중회귀분석에서 *w* 탈락이라는 변이 현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제약군으로 선택된 것임 (선택순: 선행자음(조음점)->발화스타일->음절위치->선행모음(원순성)->선행자음(유무))]

선행자음의 조음점. 두 지역어 공히 양순음(/m, p/)이 선행할 때 가장 높은 *w* 탈락의 확률을 보였고, 치경음(/t, t^h, t', s, s', n, l/)이 선행할 때 두 번째로 높은 탈락 확률을 보였으며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의 경우는 비교적 낮은 탈락 확률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연구개음이 *w*를 선행할 때 두드러지게 *w* 탈락율이 낮게 나온 Silva(1991)의 연구 결과보다는 서울방언을 연구한 Kang(1998)의 자료 분석 결과와 유사하며 원순 자질이 같은 음절 내의 연이은 자음에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즉 OCP 제약 때문에, 양순음 뒤의 *w*가 높은 비율로 탈락한다는 Kang(1998)의 제안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Kang(1998)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치경음 후의 *w* 탈락율이 양순음 뒤의 탈락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를 재점검해 본 결과 치경 자음 후 *w* 탈락 확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되게’라는 단어(예: ‘되게 피곤했습니다’, ‘되게 예뻐어요’)가 어휘적으로 특이하게 높은 *w*의 탈락율을 보인 것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단어는 구어에서 흔히 쓰이는 어휘로 본 연구의 자연발화 자료에서 발견되는 ‘치경음을 후행하는 (w)’의 전체 사례 중 두 지역어 자료에서 각각 36%의 비율을(천안·아산: 122/338, 대구: 105/291) 보였다. ‘되게’는

전술한 대로 다른 단어와 비교하여 *w* 탈락 비율이 상당히 높은 어휘적 특성을 보였는데 천안·아산 지역어에서는 52%(63/122), 대구 지역어에서는 90%(95/105)의 탈락율을 나타냈다. 특히 대구방언에서는 이 어휘가 ‘데게’라는 형태로 변화한 단계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다.

선행모음의 원순성. 두 지역어 자료에서 공히 선행모음의 원순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w* 탈락에 준다고 분석이 되었지만, 이 제약군은 상대적으로 천안·아산방언의 자료(.601 vs. .446)에서 대구방언(.545 vs. .478)에서보다 더 뚜렷한 영향을 보였다. 천안·아산 지역어에서의 이 제약군의 영향도 Kang(1998)이 보고한 서울 방언에서의 영향(.738 vs. .389)에 비하면 다소 약한 결과를 보였다.

음절위치. 대구 지역어(.407 vs. .627)도 천안·아산 지역어(.386 vs. .643)와 마찬가지로 *w*가 어두 음절에 출현하느냐 비어두 음절에 출현하느냐에 의해 뚜렷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통계 분석 결과는 보여준다. 음절 위치의 영향은 미세하나마 대구 지역어에서 다소 약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2절에서 언급했던 경상방언에서의 음절구조 제약에 의한 영향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발화스타일. 발화스타일 제약군 역시 천안·아산 방언과 대구 방언에 거의 유사한 영향을 미침을 자료 분석 결과는 보인다. 자연발화에서 가장 높은 *w* 탈락의 확률이 나타나고 최소쌍 읽기에서 가장 낮은 확률을 보이며, 문장읽기와 단어읽기에서 중간 정도의 확률을 나타낸다. 양 지역어에서 모두 단어읽기 자료가 문장읽기 자료보다 더 높은 *w* 탈락 확률을 보이는 것은 예상 밖의 결과이다. 두 공동 연구자가 제보자에게 단어를 읽을 때 명시적으로 각 단어 사이에 휴지를 두어 끊어 읽으라고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읽으라고 지시한 것이 부분적 이유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두 지역어 간의 주목할 만한 차이 하나는 화자가 자기 자신의 발화에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최소쌍읽기에서 천안·아산 방언 자료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한번도 *w*를 탈락시키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데 반해 대구 지역어 자료에서는 네 화자가 총 다섯 번의 *w*를 탈락시켜 최소쌍을 구별하지 못하는 예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이들 예는 모두 *w* 앞에 선행 자음이 있는 경우였다.). 이는 양 지역어의 젊은 화자 중에서도 적어도 일부에 있어서는 토착 방언의 음운/음절 구조에 양 방언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함축한다.

제보자의 성별은 비록 세 번의 Varbrul 분석에서 모두 남성 제보자가 여성 제보자보다 다소 높은 *w* 탈락 확률을 보이기는 했으나 한 번도 *w* 탈락 현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제약군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언어의 변이와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Cameron 1995; Coates 1990 참조)이 언어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안정적 변이(stable variation) 상황에서는 여성의 언어가 좀더 보수적이고 표준적이라는 결과를 보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Kang(1998)의 서울방언에서의 *w* 탈락에 대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한국어의 연구 결과는 여성어가 남성어에 비해 위세적 방언에 더 가까운 행태를 항상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하겠다.

성조라는 제약군은 전체 자료 통계분석과 대구 자료 개별 분석에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Varbrul 분석에서는 변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제약군으로 분석된 반면, 개별 분석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전체 자료 분석에서도 *w*가 고(H)조를 갖는 음절에 나타날 때가 저(L)조를 가진 음절에 출현할 때보다 Varbrul 탈락 확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 차이는 미세한 것이어서 *w* 탈락의 뚜렷한 제약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자기평가 테스트 자료의 분석 결과

앞서 소개했던 대로 제보자가 *w* 탈락 과정과 이 과정에 관계된 두 변이형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면담 자료의 4부에 자기평가 테스트 (self-evaluation test)를 포함시켰다. 총 11개의 테스트 항목이 포함되었고 각 항목 별로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되었다. 첫 질문은 각 단어 별로 두 변이형을 제시한 후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평소 사용하는 변이형을 선택하라고 지시하였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두 변이형 중 (예를 들어 취업 면접이나 윗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떤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질의하였다.

자기평가 테스트에 포함된 11개의 단어와 제시된 두 답과 그 단어 안에 포함된 *w*의 음운 환경은 표5와 같다. 열한 개 단어 중 여섯 개가 기저 *w* 앞에 선행자음이 있는 단어이고 나머지 다섯 개는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이다. 여섯 개의 선행자음이 있는 단어 중 네 개는 기저 *w*가 어두 음절에 나타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비어두 음절에 나오는 것이다. 다섯 개의 선행자음이 없는 단어 중 두 개는 어두 음절에 기저 *w*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머지 세 개는 비어두 음절에 *w*가 출현하는 경우이다. 열한 개의 단어 모두 *w* 존재형과 탈락형이 최소쌍 대립을 보이는 것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국어 어휘에 *w*를 기저에 가지면서 *w* 존재형과 탈락형이 최소쌍을 이루는 단어가 제한적으로 존재하여 그러한 선정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평가 테스트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한다.

번호	단어	답(a)	답(b)	음운환경
1.	광장	광장	강장	#C___
2.	쉬다	쉬다	시다	#C___
3.	석좌	석좌	석자	#o.C___
4.	좌석	좌석	자석	#C___
5.	청와대	청와대	청아대	#o.____
6.	최면	최면	체면	#C___
7.	월장	월장	얼장	#____
8.	기와	기와	기아	#o.____
9.	원주	원주	언주	#____
10.	수원	수원	수언	#o.____
11.	주최	주최	주체	#o.C___

<표5> 자기평가 테스트에 포함된 단어와 두 답과 *w*의 음운 환경

각 단어별 자기평가 테스트의 분석 결과가 표6(천안·아산 자료)과 표7(대구 자료)에 주어진다. 전체 단어 11개를 합산해 볼 때 천안·아산 지역어 화자들은 평균 27%(35/132)의 비율로 *w* 탈락형을 평소에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다. 대구 지역어 화자 12명 중 7명은 다른 화자들과는 다르게 단어 몇몇에서는 *w* 존재형과 탈락형의 중간 발음으로 발음한다고 중간형을 설정하여 답변하였다. 이 중간형을 *w* 존재형으로 분류하면 31%(41/132)의 비율로 *w* 탈락형을 사용한다고 답변한 것이 되며, *w* 탈락형으로 간주하면 44%(58/132)의 비율로 *w* 탈락형을 평소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이 된다. 두 경우 다 대구 지역어 화자가 천안·아산 지역어 화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자신의 평소 발음이 *w* 탈락형이라고 답변하였다.

번호	단어	답(a)	답(b)	답(b)비율
1.	광장	11	1	8%
2.	쉬다	8	4	33%
3.	석좌	8	4	33%
4.	좌석	10	2	17%
5.	청와대	5	7	58%
6.	최면	10	2	17%
7.	월장	12	0	0%
8.	기와	11	1	8%
9.	원주	10	2	17%
10.	수원	6	6	50%
11.	주최	6	6	50%
	합계	97(73%)	35(27%)	

<표6> 천안·아산 지역어 제보자의 자기 평가 테스트의 결과

번호	단어	답(a)	(중간형)	답(b)	답(b)비율
1.	광장	4	(4)	4	33%(67%) [#]
2.	쉬다	7	(1)	4	33%(42%)
3.	석좌	5	(1)	6	50%(58%)
4.	좌석	5	(3)	4	33%(58%)
5.	청와대	5	(1)	6	50%(58%)
6.	최면	8	(1)	3	25%(33%)
7.	월장	12		0	0%
8.	기와	9	(1)	2	17%(25%)
9.	원주	10		2	17%
10.	수원	7	(1)	4	33%(42%)
11.	주최	2	(4)	6	50%(83%)
	합계	74(56%)	7(13%)	11(31%)	

<표7> 대구 지역어 제보자의 자기 평가 테스트의 결과

[[#]괄호 밖과 안의 백분율 수치는 각각 중간형을 탈락형에 포함하지 않은 비율과 포함한 비율을 의미함]

표6과 표7의 자기평가 테스트의 결과를 음운환경별로 분석한 결과가 표8에 주어진다. 결과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제보자들은 비어두 음절의 자음 후에 나타나는 *w*를 가장 많이 탈락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비어두 음절의 음절초에 나타나는 *w*를 많이 탈락시킨다고 평가하였고, 이어서 어두 음절의 자음 뒤에 나타나는 *w*를 높은 비율로 탈락시킨다고 답변하였다. 제보자들은 어두 음절초에 나타나는 *w*는 거의(8%(4/48)) 탈락시키지 않는다고 자신의 발화를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화자들의 *w* 탈락에 대한 실제 발화 행태를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전체 자료에 나타난 실제 탈락 비율은 어두 *w*가 2%, 어두 음절 자음 뒤 *w*가 32%, 비어두 음절초 *w*가 25%, 비어두 음절 자음 뒤 *w*가 40%의 탈락율을 보였으므로 자기평가 테스트의 결과는 어두 음절 자음 뒤 *w*와 비어두 음절초 *w*의 탈락율 순위만 바뀐 것이다. 이 자기평가 테스트의 결과는 또한 대체로 두 지역어 화자들이 *w* 탈락의 두 주요 제약, 즉 음절 위치와 선행자음의 유무에 대한 무의식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함축한다.

음운환경	답(a)	답(b)	탈락답변 순위
#C_____	72(75%)	24(25%)	3
#σ.C_____	26(54%)	22(46%)	1
#_____	44(92%)	4(8%)	4
#σ._____	46(64%)	26(36%)	2

<표8> 음운환경별 자기평가 테스트 결과 분석

자기평가 테스트의 흥미로운 결과 하나는 남성과 여성 제보자들이 다소 상이한 답변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천안·아산 지역어 화자들의 경우 남성 제보자는 32%(21/66)의 비율로 평소 자신의 발음이 탈락형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그 비율이 20%(13/66)로 감소하였다. 대구 지역어 자료에서도 유사하게 남성 화자의 경우는 33%(22/66)의 비율로 자신의 평소 발음이 *w* 탈락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여성 화자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26%(17/66)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성별어 연구(예: Eisikovits 1988; Trudgill 1974)에 나타난 여러 언어사회에서의 성차, 즉 여성화자들이 남성화자들보다 표준형 발음에 더 민감하여 자기평가 테스트에서 자신의 비표준형 발음을 과소보고(underreporting)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발화에서는 여성화자들이 남성화들과 별 차이없는 *w* 탈락 확률을 보였으므로(표2 참조) 이 자기평가 테스트의 결과는 더욱 흥미롭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기평가 테스트의 두 번째 질문(*w* 존재 발음과 *w* 탈락 발음 중 어느 발음이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든 천안·아산 지역어 화자들과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대구 지역어 제보자가 *w* 존재형 발음이 옳다고 답변하였다. (한 명의 대구 지역어 화자는 ‘석좌’, ‘좌석’, ‘주좌’의 세 단어에서 *w* 존재형이 옳은 발음 형태가 아니라는 예외적 답변을 하였다.) 이는 양 언어사회의 구성원 모두 *w* 존재형을 더 위세있고 표준적인 변이형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함축하며, 이 점에서 양 언어사회는 어떤 차이점도 보이지 않았다.

V. 연구 논점에 대한 함축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Varbrul 분석 결과와 자기평가 테스트의 결과를 II절에서 제기했던 연구 논점에 관련하여 논의하고 함축적 의미를 점검해 본다.

천안·아산 지역어와 대구 지역어에 나타난 자연발화에서의 *w* 탈락율은 각각 34%와 44%(표 3과 4 참조)이다. 이는 천안·아산 지역어에서는 전체 사례 중 대략 1/3의 경우에 탈락이 일어난 것이고 대구 지역어에서는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비율로 *w* 탈락이 일어난 셈이다. 자연발화 자료에서 선행자음이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w* 탈락 비율을 점검한 결과 천안·아산 지역어가 42%, 대구 지역어가 52%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자연발화라고 지칭한 것은 공동 연구자 중 하나와의 인터뷰 상황에서 녹음된 것임을 감안하면 대구 지역어의 경우는 선행자음이 있는 경우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의 경우는 *w* 탈락율이 60%에 근접할 것으로 생각된다. Kang(1998)이 연구한 서울 지역어의 경우 대학생 화자들은 인터뷰 발화에서 29%의 *w* 탈락율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두 지역어 모두 서울 방언에서보다 높은 탈락율을 보인 것이 된다. 하지만 앞서 기술했듯이 본 연구의 대상인 두 지역의 젊은 세대 화자간의 *w* 탈락율 차이는 예상보다는 작은 것이고 화자들이 제안해 왔던 *CGV- 음절 제약은 젊은 대구 지역어 화자의 음운 체계에는 상당히 약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듯하다.

천안·아산 지역어와 대구 지역어는 비록 *w* 탈락율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w* 탈락이라는 변

이적 음운 과정에 있어서 거의 같은 언어적·비언어적 제약군에 의해 영향 받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준다. 두 지역어 자료를 개별적으로 Varbrul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는 거의 유사한 통계적 결과를 보인다. 두 지역어 모두 선행자음의 조음점, 발화스타일, 음절위치, 선행모음의 원순성과 선행자음의 유무가 w 탈락이라는 변이 과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지역어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위 다섯 개의 제약군 중 ‘선행자음의 유무’를 제외하면 나머지 네 제약군 모두 대구 지역어에 있어서 개별 제약 중 가장 높은 확률과 가장 낮은 확률의 차이가, 다시 말해 개별제약 간의 편차가, 더 작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즉 선행자음의 유무는 천안·아산 지역어에서는 .467, 대구 지역어에서는 .469(표3, 4 참조)¹⁾의 차이를 보여 거의 같은 Varbrul 확률을 보이는 반면, 선행자음의 조음점의 경우는 천안·아산 지역어와 대구 지역어의 순서로 .623 vs. 593, 선행모음의 원순성의 경우는 .155 vs. .067, 음절위치의 경우 .257 vs. 220, 발화스타일의 경우는 .596 vs. .530의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자료인 청년 계층 화자의 언어에는 표준어 교육의 영향으로 비록 약화된 상태이지만) 대구 지역어의 음절 제약의 영향이 다른 제약들의 강도를 다소 약화시킨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두 지역어는 w 탈락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제약군의 영향을 받지만 제약군의 영향은 대구 지역어에서는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II절에서 언급했던 어두·비어두 음절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선행 모음의 원순성 여부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성조는 전체 자료를 통계분석한 결과에서는 w 탈락이라는 변이 현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제약군으로 분석되었으나(표2 참조), 대구 지역어 자료를 개별 통계분석한 결과에서는 w 변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조를 가진 음절이 저조를 가진 음절에서보다 w 탈락이 조금 적게 일어나고, Varbrul 확률로도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그 차이가 너무 적어서 대구자료의 개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지 않았다(표4 참조). 이 결과는 물론 성조가 w 탈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단어읽기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졌으므로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러 발화 스타일의 좀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천안·아산 지역어와 대구 지역어의 w 탈락은 또한 동일한 언어외적 제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준다. 화자의 성별 관점에서 보면 양 지역어 자료(천안·아산: .525 vs. .476, 대구: .518 vs. .489)에서 모두 남성 화자가 여성 화자보다 다소 높은 확률로 w 탈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지는 않았다. 발화스타일에서도 양 지역어는 자연발화-단어·문장읽기-최소쌍 읽기 순으로 w 탈락 확률이 점차 하락함을 보였다. 이 결과는 화자의 자기 발화에 대한 주의와 감시가 많아질수록 w 탈락을 억제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양 지역어 화자들이 동일하게 w 존재형을 탈락형보다 더 위세가 있고 표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자기평가 테스트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양 지역어 체보자들의 답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두 지역어 사회는 음운, 음절 구조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면을 가지고 있으나 w 탈락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사회언어학적 평가 기준을 갖는 언어사회라고 간주할 수 있다.

1) 이 수치들은 .654(유)-.187(무)=.467(천안·아산), .649(유)-.180(무)=.469(대구)의 두 수식에서 산출된다.

VI.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안·아산방언과 대구방언의 *w* 탈락의 빈도는 예상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구 지역어의 자연발화에 있어 선행자음이 있는 경우의 *w* 탈락은 52%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특히 젊은 세대 화자에게는 방언 접촉과 표준어 교육의 영향으로 *w* 탈락이 장년/노인 세대보다 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대구 지역어에 그동안 유효하다고 가정해 온 *CGV-(자음+활음+모음)라는 음절구조를 금지하는 표면음성제약(phonetic surface constraint)이 젊은 세대의 언어에서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둘째 천안·아산 지역어와 대구 지역어는 *w* 탈락에 있어 동일한 제약군에 의해 아주 유사한 영향을 받음을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는 보였다. 어두·비어두 음절에서의 *w* 탈락 패턴은 두 지역어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또 선행자음의 유무와 조음점에 따른 *w* 탈락도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 다소 다른 점은 대구 지역어에서는 선행자음의 조음점, 선행모음의 원순성, 음절위치, 발화스타일의 영향이 천안·아산 지역어에서보다 약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비원순모음이 *w*를 선행할 때도 29%(표4 참조)라는 높은 탈락율을 보여, 원순모음이 선행할 때와 같은 탈락 비율을 나타냈다.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w*와 후행모음의 연쇄에서의 *w* 탈락을 음운론에서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대구 지역어 화자를 포함한 경상 방언 화자가 전반적으로 음을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제안(예: 이병건 1993)을 지지해 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천안·아산 언어사회와 대구 지역 언어사회가 적어도 *w* 탈락이라는 사회언어학적 변수에 있어서는 유사한 평가 기준을 공유하는 언어사회임을 밝혀준다. 화자의 자신의 발화에 대한 의식이 증대할수록 즉 자연발화에서 문장읽기/단어읽기를 거쳐 최소쌍읽기 발화로 이행할수록 *w* 탈락의 빈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양 지역어 자료에서 공히 발견되고 또 자기평가 테스트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양 지역어의 거의 모든 체보자가 *w* 존재형을 올바른 발음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은 두 언어 사회가 적어도 *w* 탈락에 있어서는 같은 평가기준을 공유하는 언어사회임을 함축한다.

국어의 방언 연구는 대부분 한 방언(예: 충남방언) 혹은 그보다 작은 범위의 지역어(예: 서산 지역어)의 전반적(음운, 어휘, 문법 등) 특징 혹은 부분적(성조, 모음, 자음, 음운변화, 경음화, 어미변화, 경어법 등을 포함한) 특징을 연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어 방언 연구에서는 흔하지 않은 두 지역방언을 비교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w* 탈락이라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변이적 음운 현상이 두 다른 방언에서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는가를 비교·점검함으로써 두 방언 체계가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을 지니는지를 점검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두 지역어의 자료로 상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세대의 자료만을 토대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 두 지역어 화자 전반에 유효한 것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논의하지 못한 문제는 두 지역의 젊은 세대 화자의 언어가 어떠한 성격의 언어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들의 언어는 표준어(서울방언)와의 방언 접촉과 국어 교육에 의해서 표준어와의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대구 지역 젊은 세대의 언어의 경우는 음운, 음절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이 현상은 천안·아산 지역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의 젊은 화자들은 이들의 윗세대와는 다르게 충청도 억양이나 어휘를 사용하는 빈도가 아주 제한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방언의 수렴 현상, 방

언의 평준화(leveling) 현상은 국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언어 곳곳(Auer, Hinskens & Kerswill 2006; Kerswill 2003; Trudgill 1986)에서 발견된다. 이 문제는 후행 연구의 좋은 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덕호 (2001). 경북 방언의 지리언어학. 서울: 월인출판사.
- 김성환 (1988). 경북 방언의 성조에 관한 연구. 계명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대구.
- 김차균 (1999). "대구방언 성조 체계의 변천." 김차균 (편). 우리말 방언 성조의 비교, 807-1007. 서울: 역락출판사.
- 도수희 (1987). "충청도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 국어생활 9, 34-56. 국어 연구소.
- 이근열 (1997). 경남 방언의 음운론. 부산: 세종 출판사.
- 이동화 (1990). 경북방언성조의 자립분절 음운론적 연구. 영남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대구.
- 이병건 (1993). 확실함과 확실이. 서울: 한줄기.
- 정연찬 (1991). "현대 한국어의 이중모음 체계를 다시 생각하여 본다." 석정 이승욱선생 회갑기념논총 I, 379-403.
- 주상대 (1985). "활음삭제 현상에 대하여: 경북지역어를 중심으로." 소당 천시권 박사 화갑기념 국어학논총, 24-42. 대구: 형설출판사.
- 최명옥 (1998). 동남방언의 성조형과 그 분포. 서울: 태학사.
- 최태영 (2002). 전주방언의 이중모음. 서울: 도서출판 월인.
- 최학근 (1991). 국어방언 연구. 서울: 명문당.
- 최한조 (1997). 대구말의 음운현상과 성조연구. 대구: 흥익출판사.
- 한영목 (1992). "충남방언의 고찰". 김영배 (편). 남북한의 방언연구, 101-137. 서울: 경운출판사.
- 한영목 (1998). 충남방언의 연구와 자료. 서울: 이회문화사.
- 한영목 (2000). 충남 금산 지역어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Auer, P., Hinskens, F., and Kerswill, P. (2006). *Dialect Change: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European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eron, E. (1995). Rethinking language and gender studies: Some issues for the 1990s. In S. Mills (ed.), *Language and Gender*, 63-73. New York: Longman.
- Coates, J. (1990). Introduction to part two: Language and sex in connected speech. In J. Coates and D. Cameron (eds.), *Women in Their Speech Communities: New Perspectives on Language and Sex*, 63-73. New York: Longman.
- Eisikovits, E. (1988). Girl-talk/boy-talk: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speech. In P. Collins and D. Blair (eds.), *Australian English*, 35-54. St. Lucia: 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 Guy, G. (1996).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linguistic variation. In D. Preston (ed.), *American Dialect Research*, 75-94. Amsterdam: John Benjamins.
- Kang, H. (1998). The deletion of *w* in Seoul Korean and its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67-397. Linguistic Society of Korea.
- Kerswill, P. (2003). Dialect leveling in Norway and in England. Paper presented in NAWV 32.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
- Labov, W. (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Labov, W. (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abov, W. (1981). Field methods used by the project on linguistic change on variation. *Sociolinguistic Working Paper 1981*. Austin, Texas: South Western Educational Development Laboratory.
- Martin, S. (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A Complete Guide to the Grammar and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Rutland, Vermont: Charles E. Tuttle Company.
- Nordberg, B., and Sundgren, E. (1998). *On Observing Language Change: A Swedish Case Study*. FUMS Rapport nr. 190. Uppsala University.
- Silva, D. J. (1991). Phonological variation in Korean: The case of the "disappearing *w*".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3, 153-170.
- Trudgill, P. (1974). *The Social Differentiation of English in Norwi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udgill, P. (1986). *Dialects in Conta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첨부: 면담 자료의 3부에 포함된 기저에 w 가 포함된 단어들

문장읽기 부분

I. 회사는, 여봐라, 삼월, 뭔가, 회사야, 정확, 참외, 뵙다가, 관뒤라, 뒤, 의예과, 됐어, 썩라, 뛰는, 썩, 된, 뒷산, 귀신, 뒤는, 족쇄, 죄인, 쉬어도, 쉰, 썩기, 관심, 유권자, 열쇠, 첩보되었니, 시행되고, 혜화문, 취객, 흰하개, 경찰관의, 권고, 과거, 관례가, 관심을, 위해서, 파리를

II. 석좌교수는, 좌석에서, 죄인의, 추월하려, 기와집을, 촬영해, 간통죄는, 위기에, 팡팡하고, 자위대, 쥐, 왕을, 왕십리의, 십원은, 안돼, 청와대, 호위를, 성취감을, 바, 바라, 뭉텨어, 팬찮다고, 조화를, 웬일이야, 위문을, 유쾌한, 께매, 쥐, 월요일에, 연좌제, 원시, 사회는, 사회였어, 최형우는, 존귀함을, 유인원과, 왜

단어읽기 부분

III. 생쥐, 위장, 왜적, 귀신, 존귀, 권유, 뵙다, 참외, 화폐, 유권자, 족쇄, 팬찮다, 십원, 환각, 관심, 호위, 웬일이야, 궤도, 원흥, 키키하다, 혜화문, 유쾌하다, 삼월, 께다, 휘젓다, 피돌이, 뒷산

IV. 기왕, 돼지, 의예과, 좌석, 여봐라, 연좌제, 추월, 훼손, 뛰다, 멧돼지, 파리, 석좌교수, 튀다, 쥐구멍, 취객, 촬영, 열쇠, 쉬다, 발휘하다, 썩기, 유화, 흰하다, 햇불, 위신, 뭔가, 유인원, 왕십리, 위문, 쾌감, 자위대, 월요일, 뭉를, 왕진, 기와, 바라

최소쌍 부분

V. 광장, 좌석, 월장, 이관, 쉬다, 석좌, 주좌, 청와, 최면, 기와

강 현 석

hskang1@dankook.ac.kr

이 장 희

jeyun@chol.com

접수: 2006. 9. 26.

수정본 접수: 2006. 11. 15

게재 결정: 2006. 11. 28